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4월 15일(금) 조간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359, kseulki86@kdi.re.kr)
배포일시	2016년 4월 14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4월호)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4월 14일 『KDI 북한경제리뷰1(2016년 4월호)』를 발간
 - 쿠바와 북한의 정치경제를 비교한 논문 한 편,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 한 편, 최근 북한의 사금융에 관한 논문 한 편 및 국책연구기관의 북한 경제·국토 부문 연구 성과 공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 한 편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쿠바와 북한 간 정치경제적 동질성 및 차이를 분석한 논문,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변화 원인을 전망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논문, 최근 북한의 사금융 실태를 분석한 논문 한 편이 수록

1) 1998년 10월 창간된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분석을 제공하는 월간 학술지

○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쿠바와 북한의 하이브리드 (Hybrid) 정치경제’ 논문을 통해 저발전 탈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동질성과 차이를 규명

- 탈사회주의 세계의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이론, 문지기 국가 이론, 복잡 시스템 이론 등을 활용해 양국의 정치경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쿠바와 북한에서 아래와 같은 동질성과 차이가 발견

	내용	설명
동질성	하이브리드 경제	명령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발전
	문지기 국가	경제위기 때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권 주도의 보수적 정책으로 회귀
	시장세력으로 성장한 당·군 지배연합	당·군 지배연합은 정경유착세력을 정권 내로 인입
	국가 화폐 영향력 약화	쿠바에서는 달러, 북한에서는 달러 및 중국 인민폐가 기축통화로 통용
	불평등, 부패의 제도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권력과 부의 공생’ 관계가 제도화
	시민사회 형성의 어려움	정권주도의 정경유착으로 자원과 능력을 갖춘 시민사회 형성이 어려움.
차이	권력구조	쿠바: 군부가 경제개혁 및 개방의 직접적 수혜자 북한: 독재자의 통치자금을 관장하는 당기관 및 정보기관이 수혜자
	리더십	쿠바: 현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는 오랜 정치경험 보유 북한: 신생권력자 김정은은 불규칙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을 시도
	핵문제	쿠바: 북한과 다르게 해당사항 없음.
	인접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	쿠바: 자유주의 시장경제(미국) 북한: 하이브리드 경제(중국)
	민족문제	쿠바: 다인종 국가로 집단 간 갈등구조가 복잡함. 북한: 단일 인종국가이며, 남한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
종교·문화	쿠바: 기독교 국가 북한: 절대권력자인 수령이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	

-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는 쿠바와 다르게 북한의 독재 시스템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한 신흥 부유층 및 중하층 관료·군부 중심의 동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전망이론적 전망’ 논문에서 전망이론²⁾을 토대로 과거 발의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고 최근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과를 전망

- 대상국의 준거점³⁾ 변화에 따라 제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준거점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 북한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
- 1990년대와 비교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준거점이 상승(정치경제상황의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 증가, 제재 효과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 발의 및 이행 개선과 함께 북한의 준거점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2)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만(Daniel Kahneman)은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함께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치 평가는 기준이 되는 상황(준거점, reference point)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규칙성을 찾아내어 이를 전망이론이라고 명명함. 국제정치의 의사결정 분석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임.

3) 인간의 가치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준거점, reference point)으로 동일한 기대 효용에 대해서도 준거점에 따라 효용 체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고 B의 자산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최종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가 더 행복하겠지만, 실제로는 B가 더 행복. 여기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황, 즉 A의 경우 300만원, B의 경우 100만원을 준거점이라고 부름.

○ 입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사금융의 발전, 영향 및 전망’ 논문에서 북한의 사금융 개념과 주체, 사금융 형성 및 발전 요인, 사금융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북한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사금융 형태는 사채에 의한 고리 대금업으로 파악되며,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개인과 협동기관을 넘어 국가기관 간에도 발생

- 북한 사금융의 핵심 주체는 신흥부유층으로 알려진 ‘돈주’이며, 최근 사금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활동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고, 국가기관과의 공생 관계를 통해 공식, 비공식적 이익 공유 커넥션을 형성

-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재정 파탄 및 공적 금융 기능 상실 현상은 사경제와 사유화를 한층 강화, 사금융 활성화를 야기

· 사금융의 발전은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금융 활동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

· 반면 북한 당국은 사금융의 확산으로 금융개혁 필요성을 절감, 사적 금융을 공적 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민간 보유의 외화를 환수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사금융 시장을 더욱 활용토록 부추기는 작용을 할 수 있음.

□ ‘세미나’에는 지난 4월 8일 열린 ‘2016 국책연구기관 북한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공유된 각 연구기관의 2015년 북한경제·국토 분야 연구 성과를 정리한 자료가 수록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4월호)』 목차

□ 동향과 분석

- 쿠바와 북한의 하이브리드(Hybrid) 정치경제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전망이론적 ‘전망’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 북한 사금융의 발전, 영향 및 전망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세미나

- 2016 국책연구기관 북한 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